

피아니스트를 위한 음악이론복습 (자습용)

- 음정 -

전 시간 조성을 공부할 때 나란한조를 단3도의 관계라고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음정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음정을 말할 때는 위의 악보에서 두 음의 간격에 대해 말하는데 왼쪽부터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등이라 약속하자. 1도와 4도, 5도 그리고 8도는 각각 완전1도, 완전4도, 완전5도, 완전8도라 말한다. 이는 음악이 처음 생겨나고 2음, 3음, 6음 및 7음을 음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1, 4, 5, 8도가 완전한 음정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아래 악보를 보자.



‘도’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부터 단(短)2도, 장(長)2도, 단3도, 장3도, 단6도, 장6도, 단7도, 장8도라 한다. 아래와 같이 ‘도’가 기준이 되어있지 않은 음정관계는 가까운 ‘도’로 이동하여 생각하면 쉽다. 우리 피아니스트들은 다른 전공과 달리 피아노가 없어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도’로 옮겨 놓으면 단음정인지 장음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음정을 가장 가까운 ‘도’로 천천히 옮겨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된다.



그리하여 답은 차례대로 단3도, 장6도, 장3도, 단6도가 된다.

다음은 어떤가?



이 음정들을 가까운 '도'음으로 위치시키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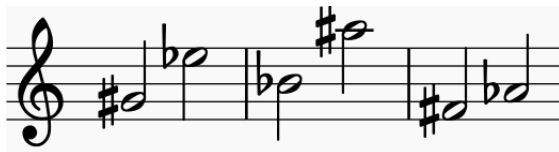


이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적혀져 있는 음정이 변하면 안된다.



음정을 말할 때 완전음정일 경우 반음이 내려가면 단음정이 아니라 감음정이라 하고 반음이 올라가면 증음정이라 약속한다. 그리하여 답은 차례대로 감5도, 감5도, 증4도, 증5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살펴보자.



위를 '도'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다.



역시 이렇게 배치시켜 놓지 않도록 한다. 항상 원래의 음정관계를 바꾸면 안된다.



2, 3, 6, 7도는 단음정보다 반음이 내려가면 감음정이 되고 장음정보다 반음이 올라가면 증음정이 된다. 그리하여 답은 감6도, 증7도, 감3도이다.

음정은 주로 화음 안에 있는 음들의 음정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아래의 악보는 C Major에서 쓰이는 화음들의 일부를 표현한 것이다. 첫 화음에서 '도'와 '미'의 음정관계는 장3도이고 '미'와 '솔'의 음정은 단3도이다. 화음에서 장3도+단3도를 장화음이라 부르고 거꾸로 단3도+장3도는 단화음이라 부른다. 밑의 화음 중 처음 화음과 네 번째 화음이 장화음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음을 단화음이라고 부른다.



<퀴즈>

1. 다음 악보에서 음정관계를 쓰시오.



답 : 단6도 증4도 완전4도 단7도 증2도 완전1도 증8도

2. 다음 악보에서 음정관계를 쓰시오.



답 : 단7도 단6도 감5도 장7도 단6도 장3도 곁감5도